

데스크 시각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그토록 기승을 부렸던 폭염도 꺾이고, 아직 하루가 남아 넘치지 않은 달력이 8월에 걸린 여름의 끝자락이다. 책상 위에 놓인 탁상 달력의 날짜 칸들은 빨간색 화살표와 검은색 볼펜으로 쓴 이름들로 빼곡하다. 빨간 펜으로 기자들의 휴가 첫날과 마지막날을 화살표로 그리고, 그 위에 해당 기자의 이름을 적은 탓에 휴가 시즌인 8월의 탁상 달력은 정신 사나울 수밖에 없다.

성수기는 선배가 먼저 짬하던 시절

탁상 달력에 기자들의 휴가나 연가, 개인 스케줄을 적어 관리하는 버릇은 기자 입문 초기인 사건기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중·후반 사회부 사건막내 기자 시절, 휴가철만 되면 탁상 달력을 들고 부서를 한 바퀴 돌았다. 가장 먼저 데스크에게 “부장님, 휴가 날짜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부장님은 대부분 빨간 펜으로 몇세 정도를 표시해 준다. 다음 순서는 수석 차장으로, 당시는 사정·도청 출입기자나 교육 담당 기자였다. 수석 차장은 부장님의 휴기일을 피해 대어섯 날을 화살표로 표시해 준다. 이틀이나 사흘로 나눠 두 차례 쉬는 선배들도 있었다. 이어 선후배 순으로 차근

‘라떼’의 여름휴가

차근 날짜를 선택한다. 서로 휴가가 겹치는 날을 피해 선택하다 보니 후배 기자들이 성수기인 7월 말~8월 초 기간에 휴가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뻔히 사정을 아는 탓에 7월 초에 이른 휴가를 떠나거나 아예 8월 하순 이후로 늦춰 잡기도 했다. 후배일지라도 해외여행이나 가족 여행을 하는 경우, 고3이나 중3 자녀를 둔 경우는 휴가를 길게 쓸 수 있었고 때론 선배와 상의해 날짜를 맞바꾸는 여유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탁상 달력 휴가 표기가 끝나면 막내 기자는 달력을 복사해 부서원 모두에게 나눠줬다.

사회부 사건기자들은 별도의 달력에 표기를 했다. 사건 캡(지방경찰청 담당)과 동·서·남·북 경찰서 담당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된 사건팀은 팀장인 캡과 부팀장격인 동부경찰서 출입기자만이 닷새 내외의 휴가를 갖고, 나머지 저연차 기자들은 사흘 가량 휴가를 갔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이 휴식이었고 휴식이 일이었다. 일과 휴식의 구분이 없던 시기였다. 출입처를 사흘 이상 비워 놓는 것이 불만하고, 흑시라도 대형 사건·사고가 터질까봐 적정돼 스스로 휴가를 길게 쓰지 않았던 시절이다. 휴가 중이라도 대형 안전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때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화정 아파트 붕괴 사고,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복귀해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루 없는 기자로 낙인찍히기 쉬웠다. 당시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복귀하지 않은 사건기자가 있어, 선배들 입살에 울랐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조직은 오직 일만을 중시했고, 기자들도 일밖에 몰랐던 시기였다. 그때는 언론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일에 미쳐 돌아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개인의 권리나 입장보다는 조직 운영과 위계질서가 우선이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휴가 턱을 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 시절 광주일보 사옥이었던 전일빌딩 지하에는 전일다방이 있었다. 여유가 있는 고참 선배들은 휴가에서 돌아오면 전일다방에 주문해 부서원 전원에게 더덕즙이나 매실즙을 썼다. 20·30년 전에도 더덕즙은 4500원일 정도로 최고급 음료였다. 중간 위치 선배들은 한 잔에 1500원 정도하는 커피를 샀다. 사건 기자들끼리는 복귀 시 휴가초(담배)를 사서 돌렸던 기억도 남아 있다.

시대 변하니 개인 일정이 우선

이같이 ‘라떼’(나 때에는)의 여름휴가는 고작 사흘이었고, 그것도 제때 못 찾아 먹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때는 그랬다. 모두가 그래서 문제의식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다.

20·30년 전에는 막내 기자로서 선배들의 휴가 날짜를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올 여름에는 정치부 데스크로서 부서 단체 대화방을 통해 휴가 날짜를 받았다. 부원들에게 먼저 날짜 선택 기회를 줬고, 이후 날짜를 찾아 휴가를 잡았다. 애초 사흘을 예정했다가 일이 생겨 데스크를 바꿀 선임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흘을 잡았다.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 옛날 방식으로 기자들의 휴가 일정을 표기한 탁상 달력, 빨간 화살표로 가득한 8월도 내일이면 넘겨야 한다. 여름이 끝나 간다. 방금 부서 단체 대화방에 미처 못 간 여름 휴가는 9월로 순연한다는 공지를 남겼다.

은펜칼럼



강대석
시인

대를 이은 사은(謝恩)

그가 천리나 먼 낯선 땅 영광 고을에 부임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준 이가 바로 수은이었다. 수은은 당시 일본에서 3년간의 포로 생활 후 귀환하여 고향인 영광 불갑에서 은거하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수은과 율항의 우정은 영광 땅에서 더욱 깊어졌다. 수시로 시주(詩酒)를 함께하며 은둔의 고통과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서로 달랬다. 파주에서 살았던 율항은 당시에 아들 다섯을 두고 있었다. 큰아들 훈거(15세), 둘째 순거(10세), 셋째 삼거(7세), 넷째 문거(4세), 다섯째 선거(2세) 등이었다. 나중에 후처에게서 아들 셋을 더 두어 아호를 팔송(八松)이라 했다. 율항은 수은의 학행(學行)을 잘 알기에 아들들을 차례로 수은의 문하에 맡겼다.

율항이 영광군수를 그만두고 떠날 때 두 사람은 손을 놓지 못했다. 수은은 율항의 뒷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나무에 맑은 서리 계절이 오고/ 가는 역정(驛情)에 해가 지누나/ 파산(坡山)과 우수(牛水)의 먼 거리에서/ 꿈결에나 서로 만나보리라” 하며 짙은 아쉬움을 시로 남겼다.

율항의 아들 중에 스승에 대한 은혜를 뉘석 깊이 간직한 이는 둘째 윤순거였다. 윤순거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모두 합격한 후 인평대군 사부 등을 지낸 학자로 서예로도 이름이 높았다. 스승인 수은이 세상을 뜨자 손수 행장(行狀)을 짓고 개장할 때도 동생 윤선거(명재 윤증의父)와 함께 만장(挽章)을 지어 애도했다.

그는 스승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았다. 금구현령으로

있을 때 수은이 남긴 외국 포로 생활의 기록인 견거록(견馬錄)을 간양록(看羊錄)으로 이름을 바꿔 서문을 쓰고, 유고를 모아 수은집(睡隱集)을 간행했다. 그는 간양록으로 책명을 바꾼 이유를 “선생은 스스로 죄인이라 여겨 견거록이라 하였으나 제자들은 차마 스승을 죄인이라 할 수 없으니 간양록이라 한다”고 밝혔다. 간양(看羊)이란 한나라의 소무(蘇武)가 19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양(羊)을 돌봤다는 고사에서 빌린 것이다.

수은집의 간행으로 잊혔던 수은의 충절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자 현종은 곧바로 수은에게 이조참의를 제수했고 영조는 수은을 한소무(漢蘇武)와 같다고 칭송하며 그의 후손에게 벼슬을 내렸으며 고종은 자헌대부 이조판서를 증직했다.

윤순거의 스승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손들에게 유지를 남겨 외손 정시수(鄭時遂)와 정시대(鄭時大)가 고종 19년(1882) 영광군수와 영암군수로 부임하자 서로 합심하여 수은의 저서인 강감회요(綱鑑會要)를 목판으로 간판(刊版)하였다. 실로 200여 년을 이어 온 그의 유지가 외손들을 통해 실현된 것이었다. 강감회요 정판은 모두 642판으로 현재 불갑 내산서원에 보존되어 있다. 윤순거가 내산서원에 배향되고 수은 후손들이 매년 제향을 올리는 이유이다.

율항과 윤순거로부터 시작된 파평 윤씨 가문의 수은 선생과 인연의 끈은 4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 배은망덕이 난무하는 세상에 또 다른 가르침을 준다.

기고

‘절제’의 가치

부추기기, 성적으로 줄 세우기, 대학은 ‘인(in) 서술’, 성공주의, 출세 지향 주의는 권력과 부의 축적을 쟁취한 사람들을 엄격하고, 거기에다가 선민의식이라는 계급장까지 달아 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엘리트주의라는 오만의 탈을 쓰고, ‘국민은 개 돼지’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 폭군이 되었다. 급기야 이 사회는 무한 경쟁과 무한 욕망을 인정하고 양산하는 문화를 후대에 물려주고 만 것이다.

‘무한’이라는 어휘를 보면 알겠지만, 이는 이미 균형을 잃어 한쪽으로 기울어진 세계관이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지양해야 할 이런 관점을 오히려 철저히 관철시키고 각자도생할 것을 요구한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채로의 가치를 그야말로 폭력적 수준으로 강요하는 양태다.

경쟁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인문학적 교육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그곳에서의 인문학(국어·역사·윤리 등)은 그저 한낱 성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을 것이다.

괴테는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무한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는 행복이라는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다. 물론 최선의 삶을 살아 낼 수도 없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기꺼이 뒤처지고 더 많이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절제’의 미덕은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절제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자기 통제’에 속한다. 푸코는 자기 통제를 “스스로 통제하고 규율이 내면화된

개인’ 즉 도덕적 규율을 내면화시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감시하도록 하는 인간’이라 정의한다. 바야흐로 현대는 내가 나에게 규칙과 규범을 부여하고, 그것을 스스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개인적 자율의 시대이다.

부분품으로서의 개개인인 자신 안에 공평한 관찰자를 만든다는 형태로 윤리적 내면 세계를 만든다면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절제’의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욕망을 이루면 또 다른 새로움을 욕망하는 ‘쾌락의 쳄바퀴’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한 번의 1등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1등을 독차지하고 싶은 새로운 욕망. 이러한 욕망에 박수치는 교육 그리고 사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성 질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는 ‘나’를 형성해야 한다.

만일 행복해지고 싶다면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더 적게, 대신 더 철저히’라는 모토로 성장하는 삶을 실천해 보자. 이는 인문학을 통해 가능하다. 문학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역사를 탐구해 인간의 흐름을 이해한다. 또한 철학을 공부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논의를 하고 자기 성찰의 방법도 터득한다.

이로써 끊임없이 욕망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여 자원을 고갈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지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를 통한 자기 통제야 수반되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할 때이다.

社說

광주 예술인 열악한 창작 환경 개선 시급하다

최근 광주문화재단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백 명의 광주 예술인들이 이 재단이 지원하는 50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타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업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아 40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런데 신청일 첫날 0시부터 200~300명의 신청자들이 일시에 접속하면서 재단 서버가 다운됐다. 재단이 서버 쪽수에 대비해 수용량을 100명으로 늘려 대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버 오류로 인해 신청자 60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광주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재단이 실시한 ‘2021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11명의 예술인 활동가 중 전업 예술인은 1280명(61.4%)이었다. 전업 예술인 가운데 66%는 비정규

직이거나 무직 상태였다. 한데 이번 지원금은 전제 전업예술인 가운데 3분의 1만 받을 수 있는 규모였다.

특히 같은 조사에서 광주 예술인들의 코로나 이전 연간 예술 소득은 평균 766만 원이었으나 코로나가 확산된 2년 사이 451만 원으로 떨어졌다. 예술 소득을 포함한 연평균 개인 소득 또한 코로나 이전 1894만 원에서 이후 1430만 원으로 감소했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의미에서 ‘예향’이라고 불린다. 그렇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 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창작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빈약한 예술인 지원 사업을 보강하고 창작·연습·실연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바다의 불청객’ 적조 대응 강화 피해 막아야

추석을 앞두고 전남 남해안 해역에 ‘바다의 불청객’ 적조가 발생해 양식장 피해가 우려된다. 서남해의 고수는 주의보에 이어 적조 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명절 대목 수산물 출하를 앞둔 어민들은 초긴장 상태다.

국립수산물연구원 예찰 조사 결과 지난 29일 고흥군~여수시 보물바다 인근 해역에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1㎖ 최대 2320개체)까지 관찰됐다. 서울 전인 26일 최대 95개체가 출현해 고흥군 외 나로도부터 여수시 돌산도 해역까지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고 이후 27일엔 350개체가 관찰되는 등 개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보물바다 해역은 수온(22~25도)과 염분(32~33)이 적조 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상태로, 당분간 개체수가 증가하고 발생 해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조가 발생한 여수 해역에는 어류·해조류 등 348개 양식장이 있어 확산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전남도는 ‘적조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적조 발생 58개 지점에 대한 주 3회 예찰을 1일 1회로 늘렸다. 아울러 산소 발생기 등 방제 장비 4396대와 황토 6만 3000t을 확보하고 여수·고흥·완도에 양식가두리 임시 대피지 6개소를 지정했다. 또 휴대전화로 양식 어민들에게 적조 예찰 결과와 수온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적조로 인한 국내 양식장 피해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44억 원에 이른다. 이를 예방하려면 주변 양식장에서는 먹이 공급 조절과 야간 산소발생기 가동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는 특히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출하를 앞둔 양식 어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적조가 연안에서 양식장이 밀집한 내만으로 밀려올 것에 대비해 황토 살포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최대한 차단하는 등 적조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와 대구는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이다. 그런데 과거 군사정권과 기성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영호남 프레임’으로 인해 동서 갈등의 상징 도시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광주와 대구가 ‘달빛동맹’으로 뭉쳐 동서 갈등 치유와 함께 영호남 화합을 다져 가고 있다. 이러한 달빛동맹 협력을 통해 이뤄낸 광주대구고속도로로 한층 가까워졌고, 이제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그리고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통해 대구와 광주가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달빛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처럼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대륙 최대의 종합 스포츠 제전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우호와 세계 평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46억 아시아인들의 대축제인 장(場)이다. 아시안게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아시아에 신생 독립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1948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아 대륙만의 종합 스포츠 대회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했다.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첫 대회가 치러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대구가 공동 유치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서울(1986년)과 부산(2002년), 인천(2014년)에 이어 네 번째이며, 두 도시 간 공동 개최 유치는 국내 최초 사례로 꼽힌다. 두 도시는 비슷한 국제 대회를 치른 경험을 갖고 있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2015년과 2003년에 하계유니버시아드를, 그리고 광주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단일 종목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따라서 양 도시의 국제 대회 경험과 각종 스포츠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2038년 아시안게임도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빛동맹’의 의지를 모아 광주시와 대구시가 시민과 함께 차분하게 준비해 유치에 성공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 나 영호남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과 아시아 평화라는 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대표

“성적을 잘 받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 밤중 교무실에 침입해 기말고사 문제와 답안지를 빼낸 혐의(업무 방해·건조물 침입)로 입건된 광주 모 고교 2학년 A군 등 두 명이 밝힌 범행 동기다. 교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미리 답을 알고 시험을 쳤다가 동급생들의 고발로 털미가 잡힌 사건이다. 더 놀라운 것은, 동급생의 인터넷을 빌리자면 그들 중 한 명은 전교회장이고 나머지 한 명도 최상위권의 학생으로 모두 우등생이라는 점이다. ‘아! 이 끝 모를 욕망이여’. 더욱이 그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삼습범이었다.

그러고 보면 작년에 Y대 로스쿨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 언급하기도 뭐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케닝은 비밀비재해 뉴스거리도 안 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

필자는 그 원인으로 ‘다위니즘-자본주의’가 결합한 무한 경쟁과 무한 욕망을 꼽는다. 그들이야말로 기성 세대들이 물려 준 ‘다위니즘-자본주의’의 무한 경쟁과 무한 욕망의 화신들이라 본다. 한국 교육의 무한 경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